政, 日대응 추경 반영 총력…日대체품 관세감면 검토

추경 2천700억원 추진…3천억원 예비비 확보 저울질

특정 수입 품목 최대 40% 관세 한시적 감면 제도 검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이뤄진 지 보름이 지나고 화이트 국가(백색국가) 배제 등 '추가 보복'까지 예고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6월 국회에서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무산되고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조차 합의되지 않아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한층 불투명해진 가운데, 정부는 여야 합의 시 조속히 증액·삭감 심사를 완료할 수 있게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또,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는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당초보다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최종 증액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를 중심으로 당장 추경안에 추가 반영해야 할 긴급 소요 예산을 취합한 결과, 총 7천929억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다.

기재부는 이들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친 결과 약 2천730억원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여야 지도부와 국회 예결위 등에 최근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국회 예결위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여당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각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을 요구한 사업들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국산화에 집중돼 있다.

산업부 예산을 보면 일본의 수출규제 3개 대상 품목을 포함해 대일 무역역조가 높은 핵심 품목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시급한 연구개발(R&D)을 위해 2천5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소재부품 상용화 지원 장비 신규 도입과 공급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400억원 증액을,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의 성능평가 필요 기업을 발굴하고 성능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50억원 신규 반영을 요구했다.

중기부 예산에서는 민간투자가 저조한 소재부품 기업 등 제조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통한 전용 펀드 조성을 위해 1천억원을 늘려달라고 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국가 간 무역 분쟁 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실태 조사와 연구 용역, 컨설팅 등을 위해 560억원, 일본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 기반사업에 3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요소기술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210억원을 각각 요청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19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방문,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 및 간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기부 예산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에 필요한 115억원을 배정하고,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팹리스 중소업체의 시제품 제작과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110억원을 늘려달라고 했다.

국산화가 시급한 수출 규제 소재 품목을 중심으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소재융합혁신기술개발' 33억원과 '미래소재 디스커버리 사업' 37억5천만원, 국산화가 시급한 소재품목 개발을 위해 나노융합 2020 사업의 원천기술 상용화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60억원을 각각 요청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목적예비비를 3천억원 더 확보해둘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할당 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일본산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반도체 소재·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깎아줘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에서 이를 검토했다.

다만 할당관세는 국가가 아닌 품목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당장 시행하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까지 관세를 면제해주는 문제가 있다. 또, 아직 기업의 대체 수입이 가능할지가 불투명한 상태다.

/연합뉴스

현대차, 하이브리드 주행성능 향상 변속기술 세계 최초 개발

주행성능·연비·변속기 내구성 등 3가지 동시 개선

현대자동차그룹이 하이브리드차의 주행 모터를 활용한 능동 변속제어(ASC; Active Shift Control)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기술은 앞으로 나올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현대차그룹의 신차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이 독자 개발한 ASC제어 로직은 하이브리드차를 구동하는 주행 모터를 활용해 자동변속기를 초당 500회씩 초정밀 제어하는 신기술이다. 이를 통해 기존 하이브리드차 대비 30% 빠른 변속이 가능해져 주행 성능은 물론 연비와 변속기 내구성 등 3가지 요소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변속감, 성능, 내구성, 연비 향상 다단 변속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하이브리드차는 연비를 높이기 위해 일반 자동변속기에 들어가는 동력변환 장치인 토크컨버터를 사용하지 않아 변속이 느리거나 변속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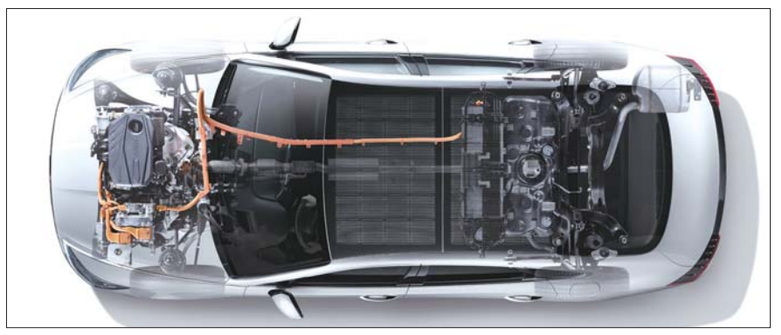
이로 인해 변속감 등 운전의 감성이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 다소 떨어졌고 추월 등 급가속이 필요한 순간에 때때로 변속이 지연돼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신속한 가속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ASC기술이 적용되면 별도 추가 장치 없이 하이브리드 제어기(HCU)의 로직만으로 주행 모터가 변속기까지 콘트롤하기 때문에 기존 하이브리드차의 단점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자동변속기 자동차가 변속을 할 때 엔진과 변속기의 서로 다른 회전 속도를 일치시켜줘야 하는데 ASC제어 로직을 통해 주행 모터에 내장된 센서가 초당 500회씩 회전 속도를 모니터링하면서 변속기의 회전 속도를 엔진의 회전 속도와 신속하게 동기화 시켜주는 원리다.

이를 통해 변속시간을 기존 500ms에서 350ms로 30% 단축해 가속성능과 연비 향상은 물론 변속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변속기 내부의 마찰을 최소화해 내구성까지 높일 수 있다.

/김민수 기자 mskim@



현대차그룹이 개발한 ASC 기술이 적용된 쏘나타 하이브리드차. /현대차그룹 제공

광주시 에너지기업, 베트남에 40만달러 수출 양해각서 체결

광주시는 지역 에너지기업들이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린 '베트남-한국 스마트전력에너지전'에 참가해 40만달러 상당의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이번 에너지전에는 한국과 베트남 기업 등 152개사가 참가하고 18개국 2만여명이 참관했다. 이번 에너지전에 참가한 인셀㈜ 등 지역 에너지기업 16개사는 기업 홍보와 수출 상담 등을 진행했다.

지역 기업 가운데 5개사는 베트남 현지 기업 등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리튬배터리 등의 수출 상담으로 40만달러 상당의 수출과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장성 고려시멘트 부지개발 광명·군산·구례 벤치마킹

전남 장성군 장성읍과 황룡면에 걸쳐있는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을 위한 현장답사가 열렸다.

21일 장성군에 따르면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자문위원회가 18~19일 광명시 광명동굴, 군산시 디오션시티, 구례군 자연드림파크를 답사했다.

광명동굴은 일제강점기 시절 지은 폐광을 체험과 예술 활동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다. 디오션시티는 공장 터를 공동주택과 상업시설로 개발하기 위한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자연드림파크는 생산, 체험, 관광이 어우러진 친환경 유기식품 클러스터로 2011년 준공됐다.

장성 초입에 자리한 고려시멘트는 2029년께 폐쇄할 예정이다. 주거단지, 관광·위락시설, 대규모 아웃렛 등 유통 및 상업단지, 산업자원을 활용한 전시관이나 박물관 등이 거론된다.

로또 〈868회〉

추첨일 : 2019년 7월 20일

번호	12, 17, 28, 41, 43, 44 + 25
등위	금 액
1등	3,233,804,250원
2등	53,013,185원
3등	1,502,698원
4등	50,000원
5등	5,000원